

주간 통일정세

2017-20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5.13	北김정은, 건축자재 전시장 시찰...“외국서 사다 쓸 생각마라”(연합뉴스)
		北매체, 김영재 대외경제상 중국 방문 확인(연합뉴스)
		北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원화협동농장 방문(연합뉴스)
		北, “CIA·국정원 테러기도” 국제기구에도 잇단 서한(연합뉴스)
	5.14	北, 내각 부총리에 건설전문가 동정호 새로 임명(연합뉴스)
		北매체, 미사일 발사한 날 “자위적 국방력 강화” 보도(연합뉴스)
	5.15	北김정은,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서 또 ‘1막2일’(연합뉴스)
		北 로켓전문가 김정식, 군복 입고 등장...별 2개(연합뉴스)
		5.16
5.17		北 “화성-12 발사, 한반도 평화·안보에 의의” 주장(연합뉴스)
5.18		北외무성 부상, 평양서 몽골 외무부 차관과 회담(연합뉴스)
5.18		北 김책공대 총장 “핵강국 떠받들 인재 더 많이 키워낼 것”(연합뉴스)
5.19		北, 신형 IRBM ‘화성-12’ 개발자들 평양 불러 자축행사(연합뉴스)
경제	5.15	“北, 中상인들 드나들 때마다 ‘통행세’ 16만원 징수”(연합뉴스)
		말레이 북한식당 돌연 영업중단...김정남 암살 영향 탓?(연합뉴스)
	5.16	“나진-블라디보스토크 연결 北 만경봉호 18일 시범 운항”(연합뉴스)
		작년 EU의 對北수입 2015년의 절반도 안돼...대북제재 영향인 듯(연합뉴스)
		“北-러, 올 1분기 교역액 작년보다 85% 증가”(연합뉴스)
5.17	中, 북중접경서 무역단속 강화...출경자 물품 전수조사(연합뉴스)	
	北, 나진-블라디보스토크 관광선 ‘만경봉’호 출항식 개최(연합뉴스)	
5.18	北-러 잇는 화물여객선 첫 취항...“양국 경제·관광협력 기여”(연합뉴스)	
	대북제재 장기화에 북중접경 北무역상들 ‘직격탄’...초긴축 나서(연합뉴스)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 임대소득 세금 등 125억원 체납”(연합뉴스)
사회 문화	5.13	北 TV, 때아닌 첩보물 시리즈 방영...‘수령옹위’ 분위기 고취(연합뉴스)
		北, 탄소하나 화학공업 공장 착공식 개최(연합뉴스)
	5.16	北, ‘체육강국’ 건설 독려...평양 보통강변 체육촌 신설(연합뉴스)
		“北 장마당 경제수준, 1980년대 中 시장경제 뛰어넘어”(연합뉴스)
		北, 연일 모내기 독려...“식량 자급자족해야 사회주의 강국”(연합뉴스)

		北 평안남도 평성시·자강도 강계시, 가방공장 준공식(연합뉴스)
		北 과학기술총연맹, 화력발전 설비 보온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개최(연합뉴스)
5.17		北 장애인 예술단, 영국 공연 위해 평양 출발(연합뉴스)
		北 과학기술총연맹, 수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개최(연합뉴스)
		北 평안북도 전쟁 노병 요양소 준공식(연합뉴스)
5.18		“北선박들, 아태지역 안전검사서 결합 판정 100%”(연합뉴스)
5.19		北, 함남 단천 수력발전소 착공...“전력문제 해결”(연합뉴스)
	5.13	北, 美정보기관 세계위협평가 3관왕...사이버·WMD·지역안보위협(연합뉴스)
		北관영매체 “美, 우리에게 핵포기 추호도 기대 말아야”(연합뉴스)
		북한,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강화에 “발작적 광분” 맹비난(연합뉴스)
		에티오피아 “北과 군사적·경제적 협력 없어”(연합뉴스)
	5.14	美유엔대사 “北미사일 韓에 메시지 발신 의도인 듯...피해망상”(연합뉴스)
		EU·나토, 北 미사일 발사 규탄...대화복귀 촉구(연합뉴스)
		北, 文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700km 비행(연합뉴스)
		러 국방부 “北미사일 러 국경서 500km 떨어진 곳에 낙하”(연합뉴스)
		“北, 핵실험계획 中에 통보했다 ‘국경봉쇄’ 경고에 중단”(연합뉴스)
외교	5.15	北, 美하원 초강력 대북제재법 비난...“강권의 극치”(연합뉴스)
국방		北 “신형 중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김정은 “美 본토 타격권”(연합뉴스)
		北 ‘화성-12’ 미사일 사진 보나...지난달 열병식에 등장(연합뉴스)
		‘화성-12’, 차량서 분리후 지상장치에서 발사...北 TV서 확인(연합뉴스)
	5.16	미국무부, 北 ‘美본토 타격 능력’ 주장에 “언행 자제하라”(연합뉴스)
		北 외무성 “美에 보복수단 쓸 날 반드시 올 것”(연합뉴스)
		구테흐스 유엔총장 北미사일 발사 비난...“비핵화 길로 복귀해야”(연합뉴스)
		안보리, 北미사일도발 강력규탄...“美, 中과 가능한 제재 논의”(연합뉴스)
		유엔 군축회의 北미사일 규탄...중·러도 동참(연합뉴스)
	5.17	美 “북한 고립시킬 외교·경제 캠페인 벌일 것”(연합뉴스)
	5.18	北과 대화조건 완화?...美 국무부 “입장 변화 없다”(연합뉴스)
		“북한군, 순항미사일 공격 대비 방호벽 강화작업”(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5.13	인민무력성 기공구, 마감건제품 및 과학기술성과 전시회장 공개활동 /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기념촬영	황병서, 박영식, 김정관	-
5.15	새 형의 로켓 시험발사 공개활동	리병철, 김정식, 정승일, 장창하, 김락겸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5. 13.

■ 北김정은, 건축자재 전시장 시찰…“외국서 사디실 생각마라”(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군이 제작한 건축자재·공구를 선보인 전시장을 시찰하고 국산화와 ‘자력갱생’을 강조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무력성 기·공구, 마감건재(마감재)품 및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장을 돌아보시었다”고 보도함.
-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며 “건설 설비들과 자재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식으로 창안 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즐기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2017. 5. 15.

■ 北김정은,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서 또 ‘1박2일’(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 시험발사 준비 현장에 이틀간 머물며 직접 발사를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15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 등은 이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시험발사를 하루 앞두고 로켓(로켓) 총조립 전투현장을 찾으시여 발사준비과정을 직접 지도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뜨겁게 고무해주시었다”고 보도함.
- 이어 “발사 당일 이른 새벽 또다시 로켓시험발사장에 나오시여 지상대지상중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시험발사 계획을 요해(사정이나 형편이 어떤가를 알아봄) 하시었다”고 보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5. 13.

■ 北매체, 김영재 대외경제상 중국 방문 확인(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13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14~15일, 베이징)’에 참석하는 김영재 대외경제상의 출국 사실을 확인함.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일대일로) 국제협조에 관한 수뇌자 연단(정상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13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보도함.
- 김 대외경제상은 이번 포럼에 중국 측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됐으나 이번 포럼에서 어떤 세션에 참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 **北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원화협동농장 방문(연합뉴스)**

-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을 찾아 모내기예 동원된 농민들을 고무했다고 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2017. 5. 14.

■ **北, 내각 부총리에 건설전문가 동정호 새로 임명(연합뉴스)**

- 북한이 동정호 건설건축공업상을 내각 부총리에 새로 임명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공화국 내각 부총리로 동정호가 임명되었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13일 발표되었다”고 보도함.
- 하지만 통신은 동정호가 장관급인 상 직책에서 부총리로 승진했는지, 아니면 내각 부총리와 건설건축공업상을 겸임하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음.

2017. 5. 15.

■ **北 로켓전문가 김정식, 군복 입고 등장…별 2개(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이 15일 공개한 김정식의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 시험발사 참관 사진에서는 김정식이 군복을 입고 김정식의 뒤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됨.
- 김정식은 중장(별 2개) 계급장을 달고 있음.
- 김정식은 작년 2월 7일 이뤄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총지휘한 인물임.

2017. 5. 16.

■ **리수용, 스웨덴 공산당 대표단 면담(연합뉴스)**

-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16일 평양을 방문 중인 로베르트 마티아손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스웨덴 공산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2017. 5. 17.

■ **北외무성 부상, 평양서 몽골 외무부 차관과 회담(연합뉴스)**

- 리길성 외무성 부상과 브. 바트체체그 몽골 대외관계성(외무부) 차관의 회담이 17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다. 공식행사

2017. 5. 19.

■ **北, 신형 IRBM '화성-12' 개발자들 평양 불리 지축행사(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지난 14일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 개발자들을 평양으로 불리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통신은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케트 '화성-12'형 개발자들이 1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며 "수도의 거리마다 국방 과학 전사들을 맞이하는 경축 분위기로 설레이었다"고 보도함.
- 통신은 "평양체육관광장부터 만수대거리, 창전네거리, 대학거리 등에 이르는 연도는 위훈자들을 기다리는 수십만 명의 각 계층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보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5. 13.

■ **北, "CIA·국정원 테러기도" 국제기구에도 잇단 서한(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 '자금세척(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

- 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12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서한을 보냈다고 13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서한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한국 국가정보원이 러시아 주재 북한 노동자를 매수해 '최고 수뇌부를 노린 폭탄테러' 지령을 내렸다는 지난 5일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 내용을 반복함.
 - 이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사명으로 하는 FATF가 이번 일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고 그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함.

2017. 5. 14.

■ **北매체, 미사일 발사한 날 “자위적 국방력 강화” 보도(연합뉴스)**

- 북한 관영 매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14일 미국과 한국에 맞서 자위적인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사 기자 명의로 2면에 게재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백두 대업의 승리가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이 우리에게 대한 압박의 도수를 계속 높이는 조건에서 각종 전쟁 광란으로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세를 통제 불능의 위기로 몰아가는 한 우리는 강력한 국방 성세를 더 억척같이 구축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도발 책동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멸적의 신념을 갖고 있으며, 온 세상을 통제로 준다 해도 우리의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과 절대 바꾸지 않는다"고 주장함.

2017. 5. 16.

■ **北 “화성-12 발사, 한반도 평화·안보에 의의” 주장(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평양 주재 외교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 발사가 "지역의 평화·안정 보장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설명회를 주재한 박정학 북한 외무성 아시아 2국 국장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북한의 '원칙적 입장'을 통보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특히 박정학 국장은 "14일에 진행된 새형의(신형)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12'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중대하고도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함.

2017. 5. 18.

■ **北 김책공대 총장 “핵강국 떠받들 인재 더 많이 키워낼 것”(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자 1면에 ‘김책공업종합대 총장 홍서현’이 기고한 ‘핵 강국을 떠받들 인재들을 더 많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무변광대한 하늘을 날은 ‘주체탄’(화성-12)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들의 열정과 땀방울도 깃들여 있다”고 기술함.
- 홍 총장은 “지금 우리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 최첨단 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주체적 핵 강국을 과학기술로 굳건히 떠받들어나가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교육자들이 드높은 열의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그는 “특히 공학교육에서 중시되고 있는 학생들이 자체로 착상, 조종도 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원만히 실현함으로써 그들 모두를 창조형 인재들로 키워 나가겠다”고 발언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2017. 5. 15.

■ **“北, 中상인들 드나들 때마다 ‘통행세’ 16만원 징수”(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5월 초부터 북한을 오가는 중국 상인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매번 약 16만 원(한화) 상당의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15일 보도함.
- 대북 소식통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4월 말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조선(북한)당국에서 (중국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내라고 했다”면서 “앞으로 대(對)조선 무역을 지속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인들이 늘고 있다”고 제보함.
-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상인이 북한 세관에 내야 하는 세금은 도시경영세 10유로, 무역세 100달러, 북한에서 발급한 중국 상인 초청장 비용 200위안과 출입증

제작 비용 50위안 등 총 1천 위안(16만원) 정도로 화폐 종류도 다양함.

다. 경제 상황

2017. 5. 16.

■ “나진-블라디보스토크 연결 北 만경봉호 18일 시범 운항”(연합뉴스)

-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연결하는 화물여객선 ‘만경봉호’ 시범 운항이 18일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러시아 해운사가 밝힘.
- 만경봉호 운항을 맡은 러시아 해운회사 ‘인베스트스트로이트레스트’사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만경봉호가 17일 저녁 나진항에서 중국 여행사 대표들을 태우고 출발해 18일 오전 7시 블라디보스토크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그는 “앞으로 본 운항이 시작되면 러시아·중국·북한 여행객 및 사업가 등의 승객과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되거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수출되는 생필품 등의 화물이 만경봉호로 월 4회 운송되게 될 것”이라고 소개함.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5. 15.

■ 말레이 북한식당 돌연 영업중단…김정남 암살 영향 탓?(연합뉴스)

- 말레이시아의 유일한 북한식당인 ‘고려관’이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두 달여 만에 돌연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됨.
- 15일 말레이시아 현지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 도심 부킷 빈탕 거리의 고려관은 지난달 말부터 영업을 중단했으며, 이 소식통은 “고려관은 최근 몇 주간 문을 열지 않고 있다”면서 “불이 꺼진 채 인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사실상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그는 “일각에선 말레이 당국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비자를 갱신해 주지 않았다는 설도 제기되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게 아니더라도 김정남 암살 이후 손님이 줄어 영업난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제보함.

2017. 5. 16.

■ 작년 EU의 對北수입 2015년의 절반도 안돼…대북제재 영향인듯(연합뉴스)

-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작년 유럽 연합(EU)과 북한의 무역량이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13.8%, 지난 2014년과 비교하면 36.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됨.
- 특히 EU가 작년에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지난 2015년과 비교할 때 절반 이상, 지난 2014년과 비교하면 4분의 3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16일 코트라(KOTRA) 브뤼셀 무역관이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EU 28개 회원국 전체와 북한의 교역량은 2천867만4천461유로로, 2015년의 3천327만6천70유로에 비해 13.8% 줄었으며, 지난 2014년(4천486만8천65유로)과 비교하면 2년 만에 36.1%나 감소함.

■ “北-러, 올 1분기 교역액 작년보다 85% 증가”(연합뉴스)

- 올해 1분기 북한과 러시아 간 교역이 작년보다 85% 이상 증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러시아 연방 관세청을 인용, 16일 보도함.
- 러시아 연방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3월 두 나라 간 교역액은 약 3천183만7천 달러(한화 35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5.3% 늘었음.
- 반면 러시아의 북한산 수입액은 42만 달러로 작년보다 88% 줄어든 것으로 파악됨.

2017. 5. 17.

■ 中, 북중접경서 무역단속 강화·출경자 물품 전수조사(연합뉴스)

- 17일 북중접경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이후 접경지역의 중국 해관(세관)들이 대북 무역에 대해 단속을 엄하게 하고 있음.
- 북중무역의 80% 가량을 담당하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해관을 비롯해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투먼(圖們) 해관에서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가는 무역상들을 상대로 해당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통관시간이 평소보다 2배 이상으로 늘고 관련 규정 적용도 엄격해짐.
- 해관 직원들은 이전과는 달리 무역상들의 물품 가운데 미신고 품목을 발견하거나 물품량·무게가 규정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압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해짐.

■ 北, 나진-블라디보스토크 관광선 ‘만경봉’호 출항식 개최(연합뉴스)

-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나진-블라디보스토크 관광선 ‘만경봉’호

출항식이 17일 나진항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2017. 5. 18.

■ **北-러 잇는 화물여객선 첫 취항…“양국 경제·관광협력 기여”(연합뉴스)**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해운회사가 운항하는 북한 선박 ‘만경봉호’가 17일 밤(현지시간) 북한 나진항에서 4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출발, 18일 오전 8시께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항에 도착함.
- 이날 운항은 이달 25일로 예정된 본 운항에 앞서 선박 상태와 항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 운항 성격임.
- 승객은 주로 만경봉호를 이용한 여행 상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 여행사 대표들임.

■ **대북제재 장기화에 북중접경 北무역상들 ‘직격탄’…초긴축 나서(연합뉴스)**

- 18일 북중접경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잇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응으로 지난해 3월 이후 2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가 시행된 이후 접경지역의 북중무역이 위축되고 있음.
- 이 때문에 랴오닝(遼寧)성 성도 선양(瀋陽)과 북중교역 거점인 단둥(丹東) 등지에 거주하는 무역상들은 최근 수입이 줄어들면서 비싼 북한식당 이용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식당을 찾고 있음.
- 이밖에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동참 이후 중국측이 북한 신의주 주민을 대상으로 30일간 단둥에 체류 가능한 통행증(일명 도강증) 갱신 및 신규 발급을 불허하면서 국경무역을 뜻대로 할 수 없는 신의주 사람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짐.

■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 임대소득 세금 등 125억원 체납”(연합뉴스)**

-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이 건물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등을 1천만 유로(약 125억원) 가량 미납한 상황이라고 독일 언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함.
- 공영 MDR, WDR 방송과 일간지 쾰트도이체차이퉁(SZ) 공동취재팀은 이미 오래 전에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의 임대사업과 관련해 양측 간에 '민사적 분쟁'이 벌어졌으며 결국 과세에 합의했으나 북한 측이 밀린 세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보도함.
- 북한대사관은 최소 지난 2004년부터 대사관 부지 내 남는 건물 공간을 독일

호텔과 컨퍼런스홀 운영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호텔 측 임차료는 현재 기준 월 3만8천 유로(4천700만 원)이며 컨퍼런스홀까지 합하면 4만 유로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짐.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7. 5. 16.

■ 北, '체육강국' 건설 독려...평양 보통강변 체육촌 신설(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체육 강국' 건설 구상에 따라 최근 평양 보통강변에 체육촌이 건설됐다고 북한 매체가 16일 보도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보통강반(변)에 종합적인 체육촌 훌륭히 건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로 "풍치수려한(경치가 멋진) 보통강반에 만리마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인 종합적인 체육촌이 훌륭히 일떠섰다"고 보도함.
- 보통강변 체육촌은 4천300㎡의 종합체육관과 200여 명 수용 능력의 체육인 숙소, 인공 잔디 축구장과 야외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등 전체 면적이 수만㎡에 달한다고 신문은 보도함.

2017. 5. 19.

■ 北, 힘남 단천 수력발전소 착공...“전력문제 해결”(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단천발전소가 나라의 대동력 기지로 새로 건설되게 된다"면서 지난 18일 현지에서 착공식이 열렸다고 보도함.
- 신문은 "대규모의 단천발전소 건설은 조국의 북부 전역의 험준한 산발들을 꿰지르며 수백 킬로미터의 물길 굴을 형성하고 장진강과 허천강, 가림천을 비롯한 강하천의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본 언제(댐)들과 발전소들을 일떠세워야 하는 방대한 대자연 개조 전투"라고 설명함.
- 착공식에는 박봉주 내각 부총리, 오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동정호 내각 부총리, 김성일 함경남도 당위원장, 리상원 양강도 당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봉주 내각 부총리는 착공식에서 "단천발전소 건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제재와 봉쇄 책동

이 악랄해질수록 더욱 무섭게 솟구치는 주체 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것”이라고 발언함.

나. 시장관련

2017. 5. 16.

■ “北 장마당 경제수준, 1980년대 中 시장경제 뛰어넘어”(연합뉴스)

- 16일 중국 북경신보(北京晨報)는 북한의 장마당 경제가 나날이 발전해 중국의 1980년대 시장경제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분석기사를 게재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전문가인 진창이(金强一) 연변대 국제정치연구소 소장은 “최근 북한 장마당 경제에 대해 관찰한 결과, 현재 장마당의 경제수준이 중국의 1980년대 시장경제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주장함.
- 진 교수는 북한 장마당 경제가 대외적으로 폐쇄됐고 국제적 운송금지 및 제한을 받고 있으나 규모로 볼 때 중국 일부 도시 수준과 엇비슷하며 개방도에 있어 놀랄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함.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5. 13.

■ 北 TV, 때아닌 첩보물 시리즈 방영…‘수령옹위’ 분위기 고취(연합뉴스)

- 북한 TV가 김일성의 신변안전을 맡은 특수공작원들의 활약상을 담은 첩보 드라마 시리즈를 매일 방영하고 있음.
- 조선중앙TV는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부터 광복 전후 김일성의 신변안전을 맡은 방첩기관과 특수공작원들의 활약상을 담은 연속극 ‘방탄벽’ 1부와 2부를 처음 방영함.
- 중앙TV는 8일 이후 매일 저녁, 이 드라마를 1~2개 부씩 내보냈으며, 13일에도 방영할 것임을 예고함.

2017. 5. 14.

■ **北, 탄소하나 화학공업 공장 착공식 개최(연합뉴스)**

- 탄소하나 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공장 착공식이 14일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박봉주 내각 총리, 오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박태성 평안남도 당 위원장 등이 착공식에 참석했으며 장길룡 화학공업상이 착공사를 함.

2017. 5. 16.

■ **北, 연일 모내기 독려…“식량 자급자족해야 사회주의 강국”(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1면 ‘황해남도 모내기 시작’ 제목의 기사에서 “경제 강국 건설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 전선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도 안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중략) 우리의 사회주의를 쌀로써 굳건히 지켜갈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모내기 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고 보도함.
- 신문은 3면 ‘모내기 전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자’는 제목의 후속 기사에서 “우리와 만난 일꾼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도, 인민들의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도 식량의 자급자족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올해 모내기 전투의 승리로 미제와 적대 세력들의 비열하고 극악한 포위환에 파열구를 내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보도함.

■ **北 평안남도 평성시·자강도 강계시, 가방공장 준공식(연합뉴스)**

- 평안남도 평성시와 자강도 강계시에 각각 가방공장이 건설돼 준공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6일 보도함.

■ **北 과학기술총연맹, 화력발전 설비 보온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개최(연합뉴스)**

- 과학기술총연맹이 주최한 화력발전 설비 보온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16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2017. 5. 17.

■ **北 장애인 예술단, 영국 공연 위해 평양 출발(연합뉴스)**

- 북한의 장애 청소년들이 영국 공연을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문철 조선장애인보호연맹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양 장애인

- 교류단이 영국에서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17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함.
- 앞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영국의 한인 민간단체인 ‘두라 인터내셔널’을 인용해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이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영국을 방문해 예술공연을 펼친다”고 보도함.

■ **北 과학기술총연맹, 수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개최(연합뉴스)**

- 과학기술총연맹이 주최한 수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16일과 17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밝힘.
-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등 10여 개 기관의 과학자·기술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140여 건의 논문이 제출됨.

■ **北 평안북도 전쟁 노병 요양소 준공식(연합뉴스)**

- 평안북도 전쟁 노병(참전군인) 요양소가 새로 건설돼 준공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함.

2017. 5. 18.

■ **“北선박들, 아태지역 안전검사서 결함 판정 100%”(연합뉴스)**

-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구에서 북한 국적 선박들이 안전에 결함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비율이 100%에 달한다는 자료가 발간됨.
-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감시하는 기구인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16년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함.
- VOA는 “북한은 이 기간(지난해) 검사를 받은 모든 선박에서 적어도 1건 이상의 결함이 발견돼 100% 결함 발견율을 기록했다”고 보도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5. 13.

■ **北, 美정보기관 세계위협평가 3관왕··사이버·WMD·지역안보위협(연합뉴스)**

- 13일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이 의회에 보고한 2017년

- 세계위협평가(Worldwide Threat Assessment)를 보면 북한은 사이버 공격, 대량살상무기, 동아시아 정세에서 위협으로 지목됨.
- 북한은 사이버 위협을 다룬 장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테러리스트, 범죄자 등과 함께 별도 항목을 차지함.
 - DNI는 “북한 정권이 2014년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미국 상업체를 상대로 예전에 사이버 공격을 실행했다”고 지적하였으며, “북한은 여전히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정상활동에 차질을 빚게 하거나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치를 능력이 있다”고 주장함.

■ **北관영매체 “美, 우리에게 핵포기 추호도 기대 말아야”(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를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 제목의 개인 명의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모험적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은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를 최대의 속도로 다그치게 할 뿐”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최근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중략)…조선(북한)이 태도를 바꾼다면 접촉을 진행하되 목표는 단순한 핵시험(핵실험) 중지나 미사일 개발 중지가 아니라 핵 포기에 둘 것이라느니, 만일 조선이 핵시험을 진행한다면 제재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나발을 불어댔다”고 언급함.
- 논평은 “핵은 우리의 존엄과 힘의 절대적 상징이자 최고이익”이라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는 배가해질 것”이라고 공언함.

2017. 5. 14.

■ **美유엔대사 “北미사일 韓에 메시지 발신 의도인 듯…피해망상”(연합뉴스)**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데 대해 “‘피해망상 상태’의 김정은이 한 미사일 발사 시험은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려고 의도한 것 같다”고 발언함.
- 헤일리 대사는 이날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사일 기착지가) 점점 러시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적함.

2017. 5. 15.

■ **北, 美하원 초강력 대북제재법 비난…“강권의 극치”(연합뉴스)**

- 북한은 이달 초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초강력’ 대북제재법에 대해 “강권의 극치”라고 반발함.
- 북한 국제문제연구원 법률연구소 소장은 15일 “최근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대북)정책을 내들고 우리에게 대한 새로운 제재 소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법률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벌이는 대조선제재압박책동은 ‘핵 전파방지’의 미명하에 우리 경제와 인민생활을 완전히 파탄시켜보려는 가장 악랄한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의 제반 원칙들을 위반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함.

2017. 5. 16.

■ **미국무부, 北 ‘美본토 타격 능력’ 주장에 “언행 자제하라”(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이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미 본토가 타격권 안에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임.
- 미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미 본토 타격 능력 주장과 관련해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우리는 정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발언함.
-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에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과 발언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외무성 “美에 보복수단 쓸 날 반드시 올 것”(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화성-12’ 발사에 대응해 발표한 규탄 성명을 비난하며 미국에 ‘보복수단’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함.
- 외무성 대변인은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상응한 보복수단을 쓸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그 기회에 조선의 탄도 로켓들이 미국에 실제로 위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될 것”이라고 발언함.

-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미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 있고 보복타격의 온갖 강력한 수단이 우리 수중에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오관해서도 안 된다”며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건드린다면 사상 최대의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

2017. 5. 17.

■ **美 “북한 고립시킬 외교·경제 캠페인 벌일 것”(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강력한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애나 리치-앨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외교·안보·경제적 조치로 북한을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한(cut the DPRK off from the rest of the world) 강력한 국제 캠페인”을 국제사회와 함께 전개하겠다고 발언함.
-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에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과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리치-앨런 대변인은 VOA에 발언함.

2017. 5. 18.

■ **北과 대화조건 완화?...美 국무부 “입장 변화 없다”(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을 다소 완화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함.
-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17일 VOA와의 통화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16일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방송은 보도함.
- 헤일리 대사는 당시 북한의 ‘화성-12’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지만, 핵 프로그램과 모든 형태의 (핵·미사일) 실험의 전면중단(total stop)을 보기 전까지는 아니다”라고 발언함.

나. 북·중 관계

2017. 5. 7.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5. 13.

■ **북한,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강화에 “발작적 광분” 맹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1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가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대북제재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을 ‘발작적 광분’이라고 비난함.
- 북한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명의의 성명에서 “이들 제재가 적용되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계략을 다 꾸미고 있다”면서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까지 위협하면서 (제재) 이행을 협박하는 지경”이라고 비판함.
- 특히, 북한 소유의 식당사업까지 제재하려는 것은 ‘유엔 결의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평범한 식당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제조공장으로 보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주장함.

■ **에티오피아 “북과 군사적·경제적 협력 없어”(연합뉴스)**

- 에티오피아가 북한과 더는 협력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함.
- VOA와 유엔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 결의 2270호(북한의 작년 1월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힘.
- 에티오피아는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과 계속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현재로서는 북한과 활성화된 군사적 또는 경제적 협력

협정(agreement)은 없는 상태”라고 표명함.

2017. 5. 14.

■ **EU·나토, 北 미사일 발사 규탄…대화복귀 촉구(연합뉴스)**

- 유럽연합(EU)과 유럽 핵심국들이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북한 정권에 대화 복귀를 촉구함.
- EU는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평화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함.
- EU는 또 북한이 즉각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국제사회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핵무기와 대량파괴 무기 프로그램도 함께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함.

2017. 5. 16.

■ **구테흐스 유엔총장 北미사일 발사 비난…“비핵화 길로 복귀해야”(연합뉴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함.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 구테흐스 총장은 “북한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무를 충실히 준수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안보리, 北미사일도발 강력규탄…“美, 中과 가능한 제재 논의”(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5일(현지시간) 오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함.
- 안보리는 성명에서 “안보리의 결의안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안보리는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고 밝힘.
- 안보리는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무기 운반 기술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 지역의 긴장을 매우 높이고 있다”면서 “북한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비핵화의 노력을 보여야 하고 더이상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힘.

■ 유엔 군축회의 北미사일 규탄·중·러도 동참(연합뉴스)

- 유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참가국들이 16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함.
-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군축회의 제2차 회기 첫 회의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약 30개국은 14일 오전 북한이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함.
- 러시아는 북한 미사일이 극동 지역에서 관련국의 인내를 시험하는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5. 14.

■ 北, 文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700km 비행(연합뉴스)

-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 새벽 탄도미사일 1발을 전격적으로 발사함.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27분께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 합참은 “비행거리는 700여km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함.

■ 北 국방부 “北미사일 北 국경서 500km 떨어진 곳에 낙하”(연합뉴스)

- 북한이 14일(현지시간)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500km 떨어진 동해에 추락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힘.
- 국방부는 “러시아 조기경보시스템은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서 500km 떨어진 일본해(동해)에 떨어지기까지 23분 동안 미사일 궤도를 추적했다”고 설명함.
- 국방부는 미사일 비행 궤도가 러시아 국경에서 상당히 먼 곳에서 러시아에서 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함.

■ **“北, 핵실험계획 중에 통보했다 ‘국경봉쇄’ 경고에 중단”(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핵실험을 실시하겠다고 중국에 통보했다가 중국 측으로부터 국경봉쇄를 경고받고 계획을 중단했다고 일본 민영방송 TBS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14일 TBS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18일 이틀 후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중국에 통보했음.
- 이에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육지와 바다의 국경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함.

2017. 5. 15.

■ **北 “신형 중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김정은 “美 본토 타격권”(연합뉴스)**

- 북한이 14일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 ‘화성-12’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이 15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로켓(로켓) 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 106(2017)년 5월 14일 새로 개발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도함.
- 김정은은 발사를 ‘대성공’으로 결론 내리고,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상응한 보복 수단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北 ‘화성-12’ 미사일 사진 보니…지난달 열병식에 등장(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4일 오전 발사한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 ‘화성-12’는 한달 전 태양절 열병식에서 공개됐던 미사일로 확인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로켓(로켓) 연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 106(2017)년 5월 14일 새로 개발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면서 30여 장의 컬러사진을 함께 공개함.
- 1면에는 검은색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 등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실림.

■ **‘화성-12’, 차량서 분리후 지상장치에서 발사·北 TV서 확인(연합뉴스)**

- 북한이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화성-12’를 발사하면서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차량(TEL)에서 분리해 지상 구조물 위에 설치한 뒤 발사한 것으로 15일 확인됨.
- 조선중앙TV는 이날 ‘화성-12’ 미사일 시험발사 소식을 보도하며 여러 장의 스틸 사진과 발사 영상 등을 공개함.
- 스틸 사진에서는 조립을 마친 ‘화성-12’ 미사일이 이른 새벽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발사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에 이어 미사일을 수직으로 세우는 장면이 확인됨.

2017. 5. 18.

■ **“북한군, 순항미사일 공격 대비 방호벽 강화작업”(연합뉴스)**

- 북한군이 지난달 중순부터 순항미사일 공습에 대비해 갯도 진지를 보호하는 방호벽을 설치·보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 언론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18일 보도함.
- 아시아프레스는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군부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북한에서 지난달 중순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공습으로부터 갯도 진지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인민무력성의 지시가 있었다고 RFA에 제보함.
- 인민무력성의 지시에는 군부대 방호벽이 대부분 석축으로 만들어져 미사일 타격에 파편이 생기면 추가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모두 허물고 모래나 흙을 마대에 넣어 쌓으라고 돼 있다고 아시아프레스는 설명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5.15		美백악관 선임보좌관 방한...“韓 민주적 정권교체 아름다운 일“(연합뉴스)
		韓美, 오늘 새 정부 출범후 첫 대좌...정상회담 조기개최 조율(연합뉴스)	
	5.16	해군 “美 칼빈슨호 한반도 해역 훈련 중...종료는 미정“(연합뉴스)	
			美백악관 보좌관 “韓과 사드 논의...계속 대화 기대“(연합뉴스)
	5.18	‘탄핵론’ 위기 불구 트럼프, 文대통령 특사단과 15분 접견(연합뉴스)	
		트럼프 “文대통령에 좋은 느낌...친서가 아름답다“(연합뉴스)	
5.19	홍석현 특사, 美국무부·의회에 ‘새 정부 대북정책·사드’ 설명(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5.15	‘일대일로’ 방중 박병석, 양제츠 만난다...사드·북핵 의견나눌듯(연합뉴스)	
			탕자쉬안 “시 주석의 韓대표 면담은 한중 관계 큰 관심 반영“(연합뉴스)
	5.18		시진핑, 박병석 대표단장 접견...“한중관계 고도로 중시돼야“(연합뉴스)

		이해찬 오늘 文친서 들고 중국行...사드해법 논의 주목(연합뉴스)	
	5.19		양제츠, 이해찬 특사에 “한중관계 매우 중요...소통 계속하자”(연합뉴스)
			中, 이해찬 특사 방중계기 사드철회 거듭 촉구(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5.14	한일 외교장관 긴급통화...北미사일 도발 논의(연합뉴스)	
	5.15		日 “유엔 위안부합의 개정 권고는 韓향한 것...법적 구속력 없다”(연합뉴스)
	5.16	한미일, 北 미사일 대응 화상회의...“美 안보공약 재확인”(연합뉴스)	
한일 관계		대미·대일 특사 오늘 文 친서 들고 출국...4강외교 시동(연합뉴스)	
	5.17	문화상 특사-日외상 회담...“국민 대다수 위안부합의 수용 못해”(연합뉴스)	
	5.18		日외무성 “한국, 독도 주변 해양조사”...한국에 항의(연합뉴스)
			日, 위안부합의 개정 국제여론 차단 ‘탈버둥’...유엔에 반론문(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5.18	러시아 특사 22일 출국...푸틴에 文대통령 친서 전달(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5.13		中일대일로 포럼 北초청 놓고 미중 신 경전...中, 美경고 일축(연합뉴스)
	5.15	미국 기업도 中 일대일로 사업에 '군침' (연합뉴스) 中 경계하던 美, 일대일로 TF팀 구성...참여 본격화하나(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5.15	日아베, 北(미사일 발사에 보좌관 美연급파...한일 국방 20분 통화(연합뉴스)	
	5.16	美틸러슨-日기시다 통화 "대화위한 대화 무의미...北에 압력필요"(연합뉴스)	아베, 美태평양사령관 면담..."대북 압력 강화해야"(연합뉴스)
	5.18	日, '한일합의 이행' 美서 세일즈...총리 보좌관, 맥케인과 회담(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5.15		푸틴 "랜섬웨어 공격 바이러스 근원지는 美정보기관"(연합뉴스)
	5.16		크렘린궁, 트럼프 기밀유출 美언론 보도에 "완전한 헛소리"(연합뉴스)
		美 "트럼프, 러와 공동위협 검토...정보원·군사작전 비공개"(연합뉴스)	
	5.17		러 외무부 "美 대북제재 강화법으로 러 항구들 영향 안받을 것"(연합뉴스)
		美맥매스터 "트럼프 러와 정보공유 적절...정보출처 몰랐다"(연합뉴스) 트럼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만남은 매우 매우 성공적"(연합뉴스)	
5.18	트럼프 "러 스캔들 수사 빨리 결론나	푸틴 "美정치권 '트럼프 기밀유출' 논란은 정치적 정신분열증"(연합뉴스)	

주간통일정세 2017-20			
분류	일자	중국	일본
		길...내통 없음 확인될 것"(연합뉴스)	
	5.19		러시아 내통 '몸통' 의혹 풀린 "함내라는 트럼프 메시지 받아"(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5.13		日해상보안청, 순시선 9척 건조 中과 분쟁 센카쿠열도 배치(연합뉴스)
	5.16	시진핑, 日여당 간사장 접견...“친선·협력이 유일한 선택”(연합뉴스)	
	5.18		中해경선, 영유권 분쟁 센카쿠 해역 진입...日, 中에 항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5.14	시진핑·푸틴 회동...北미사일 도발에 우려 표명(연합뉴스)	
	5.15		푸틴, 中 '일대일로' 구상에 적극적 지지 표명(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5. 15.

■ 美백악관 선임보좌관 방한…“韓 민주적 정권교체 아름다운 일”(연합뉴스)

-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신 정부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의 말을 전하러 왔다”고 말함.
- 미국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포틴저 보좌관은 인천공항 입국길에 최재진과 만나 “우리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매우 좋았던 대화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 포틴저 보좌관은 이어 “나 또한 한국인들이 성공적인 민주적 정권교체(transition of power)를 이뤄낸 것에 축하를 보낸다”면서 “이는 아름다운 일(wonderful thing)로, 한국인들이 세계에 영감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2017. 5. 16.

■ 韓美, 오늘 새 정부 출범후 첫 대좌…정상회담 조기개최 조율(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16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부 당국간 협의를 개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의 정상회담 개최 일정 및 의제를 조율함.
-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전날 방한한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앨리슨 후커 NSC 한반도 보좌관 등과 협의함.
- 북한이 14일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를 발사함에 따라 한미간 북핵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가운데, 양측은 두 나라 대통령의 첫 회담 일정과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해군 “美 칼빈슨호 한반도 해역 훈련 중…종료는 미정”(연합뉴스)

- 미국의 전략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군이 16일 밝힘.

- 장욱 해군 공보팀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의 칼빈슨 항모전단이 지난달 말 한반도 전개 이후 한미간 훈련을 진행 중이고 종료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함.
- 칼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에 도착해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한 것은 지난달 29일이며, 미국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보름 이상 머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데, 그만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美백악관 보좌관 “韓과 사드 논의…계속 대화 기대”(연합뉴스)**

-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6일 청와대·외교부 방문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논의를 했다고 밝힘.
- 포틴저 보좌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정규 차관보를 면담한 후 취재진과 만나 사드를 논의했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폭넓은 이슈를 논의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답하며 이어 “사드는 우리 동맹의 기본적 운영과 관계된 일로 이미 정해진 사안이다. 앞으로 계속 대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부연함.
- 포틴저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기 위한 일정을 조율했다면서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를 전달했다. 어서 만나고자 하는 두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힘.

2017. 5. 18.

■ **‘탄핵론’ 위기 불구 트럼프, 文대통령 특사단과 15분 접견(연합뉴스)**

- ‘러시아 스캔들’로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단을 전격으로 면담함.
-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3인이 배석함.
-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 수사중단 외압 의혹으로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홍 이사장 등 대미특사과 과연 면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 게 사실이었던 접견 형식과 내용은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가 나옴.

■ **트럼프 “文대통령에 좋은 느낌…친서가 아름답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좋은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홍석현 대미 특사를 만나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의 첫 정상 통화 당시 느낌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방미 특사단 관계자가 전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방미하면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미동맹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2017. 5. 19.

■ **홍석현 특사, 미국무부 의회에 ‘새 정부 대북정책·사드’ 설명(연합뉴스)**

- 홍 특사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면담함.
-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미국 방문 둘째 날인 18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찾아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입장 등을 설명함.
- 앞서 오전에는 공화당 소속인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 오후엔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남.

나. 한·중 관계

2017. 5. 15.

■ **‘일대일로’ 방중 박병석, 양제츠 만난다…사드·북핵 의견나눔(연합뉴스)**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 개막식이 열린 14일 북한이 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단장으로 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15일 중국 고위 관료와 만나 한·중 관계 개선 및 한반도 문제를 논의함.
- 이 회동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새 정부와 중국 당국 간 첫 공식 접촉이며,

이번 주로 예상되는 이해찬 특사의 방중을 앞두고 양국 간 현안을 사전 조율하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 15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어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조어대(釣魚台) 국민관에서 예서 탕자취안(唐家璇)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날 예정이며, 이어 저녁에는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廉>)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면담함.

■ 탕자취안 “시 주석의 韓대표 면담은 한중 관계 큰 관심 반영”(연합뉴스)

- 탕자취안(唐家璇) 중국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한국정부 대표단장인 더불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14일 만난 것은 중국의 한중 관계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한다고 밝힘.
- 탕 전 국무위원은 15일 베이징(北京) 조어대(釣魚台) 국민관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한 박 의원을 만나 이같이 말함.
- 탕 전 국무위원은 “어제 박 단장이 시 주석과 만났는데 비록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중국 측이 한중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 지를 충분히 보여줬다”면서 “시 주석은 박 단장의 방문이 원만하게 성공을 거두길 바랐으며 안부 인사와 함께 한국 지도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밝힘.

■ 시진핑, 박병석 대표단장 접견…“한중관계 고도로 중시돼야”(연합뉴스)

- 박병석 단장은 15일 주중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늦은 저녁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안부의 말을 전했고 우리 대표단을 많이 배려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말함.
- 박 의원은 전날 저녁 일대일로 정상포럼 환영 만찬에 앞서 중국 측으로부터 시 주석 면담을 통보받았고 환영 만찬이 끝난 뒤 10여 분 정도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을 별도로 면담함.
- 박 의원은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가 대단히 만족스러웠으며 문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이념에 관해 높이 평가하고 공통점이 많다는 말도 했다”면서 “한중 관계는 고도로 중시돼야 하며 한중 관계 발전은 양국은 물론 아시아를 넘어 세계평화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강조의 말도 있었다”고 언급함.

2017. 5. 18.

■ 이해찬 오늘 친서 들고 중국行...사드해법 논의 주목(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의 대 중국 특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향함.
- 이해찬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또는 최고위급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신 정부 출범의 정치적 의의 및 문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에 대해 설명함.
- 또 신 정부 대외정책 방향 및 목표에 대한 지지를 구하고 북핵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싼 협력 외교의 토대 구축을 도모할 전망이며 특히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간 갈등의 해법을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 5. 19.

■ 양제츠, 이해찬 특사에 “한중관계 매우 중요...소통 계속하자”(연합뉴스)

-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특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게 한·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하자고 밝힘.
- 양제츠 국무위원은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상하이팅에서 이해찬 특사와 만나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이런 입장을 내비침.
- 양 국무위원은 “문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그만큼 문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한·중 관계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함.

■ 中, 이해찬 특사 방중계기 사드철회 거듭 촉구(연합뉴스)

-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특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방중한 걸 계기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한국이 해결해야만 양국 관계 복원이 가능하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8일 이해찬 특사를 만나 한·중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사드 배치 문제가 양국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 새 정부가 중국의 우려 사항을 존중해 조치해주길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함.
-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특사 방문 기간 사드 문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 측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함.

다. 한·일 관계

2017. 5. 14.

■ 한일 외교장관 긴급통화·北미사일 도발 논의(연합뉴스)

- 북한이 1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이 긴급 통화를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함.
-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5분간 긴급 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양 장관은 통화에서 이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대응에 있어서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2017. 5. 15.

■ 日 “유엔 위안부합의 개정 권고는 韓향한 것…법적 구속력 없다”(연합뉴스)

-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5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에 대해 보고서의 내용이 한국을 향한 것으로, 일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깎아내림.
-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합의는 당시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 유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의 일(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은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그는 “(위원회의 권고는)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덧붙임.

2017. 5. 16.

■ 한미일, 北 미사일 대응 화상회의…“美 안보공약 재확인”(연합뉴스)

-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틀 만인 16일 화상회의를 열어 공조 방안을 논의함.

-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지난 14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오늘 화상회의를 개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미·일 3국은 지역 안보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함.
-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미국 측은 크리스토퍼 존스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일본 측은 가노 고지 방위성 방위정책과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함.

2017. 5. 17.

■ **대미·대일 특사 오늘 文 친서 들고 출국…4강외교 시동(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의 초석을 놓을 대미·대일 특사단이 17일 출국함.
-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17일 오전 대일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이사장(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차례로 도쿄와 워싱턴으로 출발함.
-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각국 정상 또는 최고위급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신 정부 출범의 정치적 의의 및 문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에 대해 설명함.

■ **문희상 특사·日외상 회담…“국민 대다수 위안부합의 수용 못해”(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만나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 내 분위기를 전함.
- 문 특사는 이날 도쿄(東京) 외무성 청사에서 기시다 외무상과 가진 40분간 회담을 통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강조함.
- 그는 이어 “고노·무라야마·간 나오토(菅直人)의 담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내용을 직시하고 그 바탕에서 서로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문 특사는 회담 후 “(일본 측이 위안부합의) 준수를 주장하면 파기를 (주장)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말씀은 안 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힘.

2017. 5. 18.

■ **日외무성 “한국, 독도 주변 해양조사”…한국에 항의(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함.
- 외무성은 “17일 오후 1시께 독도 서쪽 40km 지점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선 ‘해양2000’이 쇄줄 같은 물건을 바닷속에 던지고 있는 것을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확인했다”고 밝힘.
- NHK는 외무성이 “동의를 없는 조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중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해양2000은 활동을 계속했다며 이 선박은 일본 영해에 한때 들어오기도 했다고 전함.

■ **日, 위안부합의 개정 국제여론 차단 ‘발버둥’…유엔에 반론문(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와 관련, 조만간 반론문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함.
-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 위안부를 성노예로 보는 점을 지적하고 한일 합의 개정은 필요없다는 생각을 넣을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함.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달 12일 보고서를 내고 2015년 12월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라. 한·러 관계

2017. 5. 18.

■ **러시아 특사 22일 출국…푸틴에 文대통령 친서 전달(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한반도 주변 4강 및 유럽연합(EU)·독일 특사단 파견의 마지막 일정으로 러시아 특사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오는 22일 출국함.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신정부 외교 정책과 비전을 전달하고 협력외교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특사들이 미국과 일본을 방문 중에 있고, 오늘 중국과 EU·독일 특사단도 출발했다”며 이같이 밝힘.
- 송 특사는 이번 방문에서 러시아와의 대화 복원 및 북핵 문제 공조, 양국 정상회담 등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5. 13.

■ **中일대일로 포럼 北초청 놓고 미중 신경전…中, 美경고 일축(연합뉴스)**

- 베이징(北京) 주재 미국 대사관은 12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에 외교 문서를 보내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북한 정부 대표단을 초청한 것은 현시점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미사일·핵실험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전방위 압박하는 와중에 국제행사에 북한 대표단 참석을 요청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임.
- 미국은 북한이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짐.

2017. 5. 15.

■ **미국 기업도 中 일대일로 사업에 '군침'(연합뉴스)**

- 미국 기업들이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4일 보도함.
- 2014년 제너럴 일렉트릭(GE)은 일대일로 사업에서 중시하는 지역의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중국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들로부터 겨우 4억 달러의 장비를 수주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수주액은 23억 달러로 급증함.
- GE는 향후 18개월 동안 추가로 이 지역의 인프라 사업을 위해 중국측이 발주하는 70억 달러의 천연가스 터빈과 기타 발전설비 입찰에 참여할 계획임.

■ **中 경계하던 美, 일대일로 TF팀 구성…참여 본격화하나(연합뉴스)**

-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발을 들이기 시작함.
- 15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 중인 미국 대표단 단장인 매슈 포틴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 기업은 이미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포틴저 보좌관은 전날 포럼의 인프라연계 분야 분조토론에서 “미국 기업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실현할 능력도, 뜻도 있다”며 주중 미국대사관에 일대일로 사업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했다고 전함.

나. 미·일 관계

2017. 5. 15.

■ **日아베, 北(미사일 발사에 보좌관 美연급파...한일 국방 20분 통화(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총리보좌관을 미국으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일간 공조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하기 위한 것임.
- 가와이 보좌관은 이날 출국해 19일 귀국한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물론 상·하원 간부들과도 만나 대북 압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2017. 5. 16.

■ **美틸러슨-日기시다 통화 “대화위한 대화 무의미...北에 입력필요”(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6일 전화 통화를 하고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에 압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통화 후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으며,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틸러슨 장관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함.
- 기시다 외무상은 또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단호한 자세로 대응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고 밝힘.

■ **아베, 美태평양사령관 면담...“대북 압력 강화해야”(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6일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과 면담하고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 대북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함.
-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을 방문 중인 해리스 사령관과 만나 지난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일 양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용인할 수 없다”며 “지금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함.
- 아베 총리는 최근 이뤄진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과 자위대 호위함의 공동훈련을 거론하며 “미일의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결의를 보여줬다”며 “평화안전법제와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의한 동맹이 강화돼 온 만큼 협력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함.

2017. 5. 18.

■ **日, ‘한일합의 이행’ 美서 세일즈…총리 보좌관, 맥케인과 회담(연합뉴스)**

- 일본이 미국에서도 한국의 위안부 한일합의 이행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외교 ‘세일즈’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교도통신은 미국을 방문 중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총리보좌관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회담했다고 18일 보도함.
- 가와이 보좌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나와 맥케인 위원장은 2015년의 위안부 한일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함.

다. 미·러 관계

2017. 5. 15.

■ **푸틴 “랜섬웨어 공격 바이러스 근원지는 美정보기관”(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최근 전 세계 150여 개국을 강타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 미국 정보기관을 공격 바이러스의 근원지로 지목함.
-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랜섬웨어’ 바이러스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질문에 “이 바이러스의 1차 근원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지도부가 직접 밝혔듯이 미국 정보기관이며, 러시아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함.
-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 14일 사이버 공격에 쓰인 소프트웨어는 해커들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훔친 코드에서 나왔다고 밝힌 바 있음.

2017. 5. 16.

■ **크렘린궁, 트럼프 기밀유출 美언론 보도에 “완전한 헛소리”(연합뉴스)**

-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슬람국가’(IS)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강하게 반박하고 나섬.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이는(미국 언론보도는) 완전한 헛소리”라며 “반박이나 확인을 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함.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언론 보도는 (지난해) 미 대선을 전후해 시작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선전전의 일환”이라면서 “이는 (미국 내) 정치 진영간 세력 다툼이며 새 행정부(트럼프 정권)에 대한 압박”이라고 규정함.

■ 美 “트럼프, 러와 공동위협 검토…정보원 군사작전 비공개”(연합뉴스)

- 미국 정부 당국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섬.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대사를 백악관에서 만나 수니파 극단주의조직인 이슬람국가(IS) 주요 정보원을 위협에 빠뜨리는 내용의 핵심 정보를 말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는 오보라는 것임.
-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당시 회동에 배석하거나 참여한 외교·안보 수뇌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라브로프 장관 등과 공동의 위협을 검토했지만 어떤 군사작전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2017. 5. 17.

■ 러 외무부 “美 대북제재 강화법으로 러 항구들 영향 안받을 것”(연합뉴스)

- 이달 초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대북제재강화법이 러시아 항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17일(현지시간) 밝힘.
- 외무부는 지난 4일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대북제재강화법이 러시아 극동 지역 항구들을 특별감시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타스통신에 이같이 설명함.
- 외무부는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 독자 제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미국의 새 법(대북제재강화법)이 최종 채택되더라도 러시아 항구들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美 맥매스터 “트럼프 러와 정보공유 적절…정보출처 몰랐다”(연합뉴스)

-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5월 15일 러스 국무장관과 공동으로 해명성명을 낸 데 이어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을 직접 찾아 워싱턴포스트(WP)의 기밀유출 보도는 오보라고 반박함.
- 그러나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출처를 몰랐다고 언급해 또 다른 엉뚱한 논란에 휩싸임.

-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관리들과 기밀 정보를 공유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기밀 정보고 어떤 것이 기밀 정보가 아닌지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한 것은 전적으로 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말함.

■ 트럼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만남은 매우 매우 성공적”(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논란을 빚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동에 대해 “매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함.
- 그는 “우리는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가능한 많은 도움을 얻고자 했다”며 “향후 여러 해에 걸쳐 많은 위대한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푸틴 “美정치권 ‘트럼프 기밀유출’ 논란은 정치적 정신분열증”(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기밀정보를 유출했다는 미국 정치인들의 주장을 ‘정치적 정신분열증’이라고 비판함.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남부 휴양도시 소치에서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내에서 번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함.
- 푸틴은 “우리는 미국에서 정치적 정신분열증이 심해지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라브로프에게 어떤 비밀을 제공했다는 비난은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함.

2017. 5. 18.

■ 트럼프 “러 스캔들 수사 빨리 결론나길…내통 없음 확인될 것”(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임명된 것과 관련해 “이 문제가 신속하게 결론이 나길 고대한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 선거캠프가 어떤 외국 기관과도 내통하지 않았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함.

2017. 5. 19.

■ 러시아 내통 ‘뭉툭’ 의혹 풀린 “힘내라는 트럼프 메시지 받아”(연합뉴스)

- 미국 대선개입을 의심받는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에서 낙마한 마이클 플린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최근 “힘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야후뉴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함.
- 러시아 내통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는 플린 전 보좌관은 지난달 버지니아 주에서 한 지지자들과의 대화에서 “막 대통령에게서 힘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으나, 어떤 식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음.
- 특히 플린 전 보좌관은 자신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충성할 것임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라. 중·일 관계

2017. 5. 13.

■ 해상보안청, 순시선 9척 건조 中과 분쟁 센카쿠열도 배치(연합뉴스)

-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한 경비 강화를 위해 내년도까지 소형 순시선 9척을 건조한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이 가운데 3척은 이미 건조돼 지난해 10월 오키나와(沖縄) 미야코지마(宮古)해상보안부에 배치됐다. 나머지 6척도 센카쿠열도 경비 업무를 위해 배치됨.
- 이들 소형 순시선은 주로 중일간 영유권 분쟁 수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중국 어선을 감시하고 해당 수역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됨.

2017. 5. 16.

■ 시진핑, 日여당 간사장 접견...“친선·협력이 유일한 선택”(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16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 포럼 참석차 방중한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 간사장과 만나 양국 간 친선과 협력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밝힘.
-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조어대(釣魚台) 국빈관에서 니카이 간사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과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노력하고 양국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중·일 관계가 정확한 방향을 따라 나가도록 노력하길 일본에 바란다”고 말함.
 - 그는 이어 “역사가 증명하듯이 평화, 친선, 협력만이 양측의 유일한 선택이자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동 바람”이라면서 “양국 관계를 저해하는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해 국면을 돌려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2017. 5. 18.

■ **중해경선, 영유권 분쟁 센카쿠 해역 진입…日, 中에 항의(연합뉴스)**

- 중국 해경선이 18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일본 영해에 진입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해짐.
-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본부는 중국 해경국 어선 4척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자국 영해에 진입한 것을 확인, 인근 해역에서 나가라고 경고함.
- 중국 해경국 어선은 지난 8일에도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에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짐.

마. 중·러 관계

2017. 5. 14.

■ **시진핑·푸틴 회동…北미사일 도발에 우려 표명(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14일 베이징(北京)에서 회동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명함.
-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이날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함.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으며 상황 전개와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힘.

2017. 5. 15.

■ **푸틴, 中 ‘일대일로’ 구상에 적극적 지지 표명(연합뉴스)**

- 러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지지하며 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포럼 이틀째인 이날 원탁회의 연설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제안한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현대적 발전 경향과 궤를 같이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지지를 표시함.
-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프로젝트를 지지할 뿐 아니라 중국, 다른 관심 국가들과 함께 프로젝트 이행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함.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5.13	미 상원, 북한인권법 재승인법 발의...정권 붕괴 대비 촉구(미국의소리)
	5.16	방북 유엔 특별보고관 “북한 장애인 권리 실현 갈 길 멀어”(미국의소리) 북 억류 한 달 째 토니 김 영사 접견 안 돼(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5.16	北 외무성에 인권담당 대사·조직 존재 유엔문서로 확인(연합뉴스)
	5.17	南 탈북민-北 가족, 음성통화 단속 피해 영상통화(연합뉴스)
	5.18	계속 오르는 도강비, 2천만 원 육박(자유아시아방송)
		EU·유엔 “북한 주민 440만 명, 긴급 식량 조치 필요”(자유아시아방송)
5.19	북, 중국에 노동인력 파견 주춤(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남한동향	5.14	출범 지연 북한인권재단 구성 ‘처음부터 다시’(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5.17	탈북자들 SNS 통해 북한인권운동 지평 넓혀(미국의소리)
대북지원	5.12	미 NGO 대표, 북 장애인 지원 논의차 방북(자유아시아방송)
	5.16	WFP, 대북 지원 사업에 자체 예산 870만 달러 투입(미국의소리)
		유엔, 북한 수재민 60만명에 의료 지원(자유아시아방송)
		UNDP 올해 대북 지원사업 재개 어려워(자유아시아방송)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5. 13.

■ 미 상원, 북한인권법 재승인법 발의...정권 붕괴 대비 촉구(미국의소리)

-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S.1118)이 11일 상원에 발의됨.
-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발의 되었으며 승인법은 이에 더해 북한 정권 붕괴에 미국 정부가 대비할 것을 촉구함.
-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같은 당 코리 가드너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테드 크루즈 의원, 민주당의 벤 카딘 외교위 민주당 간사,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공동 서명함.
- 2022년까지 연장될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포함 되었고, 또 국무부에 북한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두도록 했고, 방송을 통해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도록 함.

2017. 5. 16.

■ 방북 유엔 특별보고관 “북한 장애인 권리 실현 갈 길 멀어”(미국의소리)

-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 북한 당국의 일부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함.
-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등 다른 분야에서의 일부 진전을 통해 장애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먼저 북한 정부가 장애인들의 존엄과 능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고, 모든 장애인 학습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 위에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함.
- 또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물리적 접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여성 등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으며 아울러 모든 장애인들의

법률적 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북 억류 한 달 째 토니 김 영사 접견 안 돼(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달 22일 북한은 평양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인 토니 김, 한국명 김상덕씨를 구금했는데,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김씨의 영사 접견이 허락되지 않아 그의 수감생활과 건강 상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짐.
- 국무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달 26일 마크 토너 대변인 대행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김씨의 영사 접견이 허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힘.
- 미국과 북한은 수교하지 않아 스웨덴, 즉 스웨리예대사관의 영사가 미국의 북한 관련 업무를 협조하고 있지만 한 달 째 억류된 토니 김씨의 영사 접견이 허락되지 않고 있음.
-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은 김씨를 포함해 오토 워비어, 김동철 목사 등 총 3명이며 한국계 캐나다인 목사 임현수씨도 지난 2015년 2월부터 북한에 구금돼 있음.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5. 16.

■ 北 외무성에 인권담당 대사·조직 존재 유엔문서로 확인(연합뉴스)

-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침해국이라는 비판을 받는 북한이 외무성에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를 담당하는 조직과 대사 직책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유엔 특별보고관 발표문을 통해 확인됨.
- 이달 3~8일 북한을 방문했던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8일 평양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외무성 인권담당대사(Ambassador for Human Rights)와 외무성 인권·인도주의 과장(Division Director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ssues) 등을 포함한 평양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언급은 유엔 홈페이지에 게재된 데반다스 아길라 보고관의 방북 결과 발표문에서 16일 확인됨.
- 데반다스 아길라 보고관이 만난 외무성 ‘인권담당대사’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

신이 최근 그의 방북을 결산하는 기사에서 면담자로 거론한 리홍식 외무성 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2017. 5. 17.

■ **南 탈북민-北 가족, 음성통화 단속 피해 영상통화(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음성통화를 이용한 국제전화 단속을 강화하자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이용한 소통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이 17일 주장함.
- 대북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스마트폰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했다”며 “영상으로 가족의 안부를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신기했다”고 전함.
- 소식통에 따르면 예전에는 북한 가족들이 중국산 폴더폰이나 슬라이드폰을 사용했으므로 북한 국경 지역에 설치된 전파 레이더의 감청이나 위치추적 등에 노출돼 있었음.
- 하지만 스마트폰의 영상통화나 사진전송은 전파 레이더가 전혀 감지할 수 없으므로 공안 당국의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함.

2017. 5. 18.

■ **계속 오르는 도강비, 2천만 원 육박(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하기 위해 북측 국경경비대 등에 내는 ‘도강비’가 한국 돈 기준 평균 1500만 원(1만3300 달러)에서 많게는 1800만 원(1만6000 달러)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짐.
-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도강비’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사이 올랐는데 이전의 ‘도강비’는 1000만 원(8900 달러)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고 함.
- 안명철 엔케이워치 대표는 북한 주민이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을 때 지불하는 도강비가 현재까지 1500만 원 수준으로 오른 상황이며 돈을 주고도 탈북을 주선하는 브로커를 찾기 힘들다고 밝힘.
- 탈북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났다기보다는 탈북을 용인하거나 방조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 ‘도강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을 방조한 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고 “탈북에 관여한 자는 죽는다”는 인식이 북한 사회에 퍼져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임.

■ EU·유엔 “북한 주민 440만 명, 긴급 식량 조치 필요”(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과 세계식량계획 WFP,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공동 발표한 ‘2017 세계식량위기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17%인 440만여 명이 심각한 식량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힘.
- 유럽연합과 유엔은 보고서에서 전세계 국가별 식량안보 상황을 ‘통합식량안보 단계분류’기준에 따라 심각하지 않은 1단계에서 기아나 아사 상태까지 치닫는 상태인 5단계로 나눠 평가했는데, 북한은 주민 10명 가운데 2명 꼴인 440만여 명이 식량 위기 상태인 3단계 또는 그보다 심각하며,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통합식량안보 단계분류’ 3단계는 “인도주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각 가구가 급성 영양실조나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보고서는 또 북한 주민의 22%인 560만여 명은 분류 기준 2단계인 “인도주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적정 수준의 식량만을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이며 북한에서 식량 부족을 겪는 주민은 2단계와 3단계를 합한 1천만여 명으로, 전체의 39%에 해당한다고 밝힘.

2017. 5. 19.

■ 북, 중국에 노동인력 파견 주춤(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던 북한의 대중국 인력 수출이 최근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음.
- 중국 접경도시의 한 대북 소식통은 “과거에는 흔히 보이던 무리를 지어 중국에 들어오는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요즘에는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전함.
- 한꺼번에 적게는 수십 명씩, 많게는 백 명이 넘게 인솔자의 통제에 따라 해관 앞마당에 대기하고 있는 대형 버스에 올라 목적지로 향하던 북한 노동자들의 입국 장면이 최근에는 눈에 띄지 않음.
- 이와 관련 중국의 또다른 대북 소식통은 “중국기업들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면서 “올 들어 북한측이 정세의 엄중함을 이유로 중국 기업들과 북한 노동자 파견에 관한 상담을 미루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5. 14.

■ 출범 지연 북한인권재단 구성 ‘처음부터 다시’(연합뉴스)

- 북한인권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등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 구성 작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고 14일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진 구성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상황”이라고 말함.
-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12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4명)이 상근 이사직 한 자리를 보장해달라며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인권법 제정 1년이 넘도록 재단이 출범하지 못함.
- 통일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서 여당인 민주당 추천 이사가 5명으로 늘었고, 야당도 5명의 이사를 각 당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다시 협의해야 한다”면서 “출범이 많이 지연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5. 17.

■ 탈북자들 SNS 통해 북한인권운동 지평 넓혀(미국의소리)

- 유럽에 거주하는 탈북자 단체인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유럽총연)의 장만석 회장은 페이스북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말함.
- 이 단체는 당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뒤 동영상은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 동영상은 즉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됨.
- 지난달 말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탈북민총회 개최를 발표했고, 총회가 끝난 뒤에는 사진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음.

5. 대북지원

2017. 5. 12.

■ 미 NGO 대표, 북 장애인 지원 논의차 방북(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해온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 대표가 최근 북한을 방문해 북한과 한국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장애인 체육 교류를 논의했다고 밝힘.
- 미국의 민간구호단체인 킨슬러 재단의 신영순 대표는 지난 주 중국 베이징을

- 통해 북한을 방문해 이번 주까지 머물며 장애인 지원을 위한 활동을 진행함.
- 킨슬러 재단 관계자는 신 대표가 7박 8 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유엔의 장애인 인권위원회 조사단장으로 평양을 방문한 카타리나 아길라 단장을 만나고 북한 당국자와 함께 장애인 지원과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함.

2017. 5. 16.

■ WFP, 대북 지원 사업에 자체 예산 870만 달러 투입(미국의소리)

- 세계식량계획이 '북한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영양 지원과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사업에 자체 예산 870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는 최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세계식량계획이 자신들의 대북 식량안보 사업에 자금을 투입했다며 이같이 밝힘.
-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자금 부족으로 북한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식량 지원을 일부 중단함.
- 이 기구는 앞서 지난 24일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자금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영양강화식품 생산에 필요한 비타민 혼합식품의 구입과 운송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힘.
- 그러면서 비타민 혼합식품 부족으로 지난달 초부터 이달 말까지 유치원 어린이 19만여 명에 대한 영양강화식품 (fortified blended food)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함.

■ 유엔, 북한 수재민 60만명에 의료 지원(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16일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에 대한 조치 보고서(North Hamgyong Floods: After Action Review)를 공개했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 "당초 의료지원 목표 수치였던 60만명을 넘어 회령시, 연사군, 무산군 등 수재민 60만4천여명(604,223)에게 의료지원을 했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수해 피해지역에 임시 병원을 55개를 설립해 설사 환자 14만명을 치료했고, 24만5천 명에게 응급 보건 세트를 전달했고 출산 장비1천380개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구 200여개를 지원함.
- 이 밖에 수재민 16만8천 명에게 식수와 위생용품을 지원했고, 6만8천 명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임산부와 어린이 등 7만8천 여명에게는 영양 보충제와 고열량 비스킷을 지원하고 1만8천 명의 어린이에게 학용품과 교과서를, 30개의

유치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마련함.

- 이번에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에 참여한 유엔 기구들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과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독일의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 등 국제구호단체들임.

■ UNDP 올해 대북 지원사업 재개 어려워(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대북 지원 사업을 펼치는 6개 유엔 기구를 대표하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난해 말 중단됐던 대북지원 사업을 올해에도 재개하기 힘든 상황임.
- 16일 유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개발계획’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2017년 정기 운영이사회에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국가 프로그램’(country programme)의 지원 활동 재개, 연장, 또는 신규 사업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음.
- ‘유엔개발계획’의 북한 프로그램은 운영이사회가 지난 1월 30일 열린 상반기 정기회의에 제출된 2011~2015년 주기 북한 ‘국가프로그램’의 1년(2017년 1월1일~12월31일) 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6월에 열릴 중반기 정기회의에서 재심의 하기로 미룬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작년 말부터 중단돼 온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이 재개되려면 중반기 정기이사회 일정에 맞춰 미리 사업 연장 신청이 이뤄져야 함.
- 정기이사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을 보여주는 유엔 공식 문건(DP2017/L.2)을 확인해 봐도, ‘유엔개발계획’의 다른 국가에 대한 지원 활동은 안건으로 올려져 있지만 북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빠짐.
- 유엔 기구들은 운영이사회와 그에 따른 총회의 예산 인준이 없으면 실제 활동이 불가능하기에, 운영이사회 승인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유엔개발계획’의 북한 프로그램 중단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